

# 서남해안 솔라시도 1434만㎡ 시장에 나왔다

〈여의도 면적 5배〉

### 분양 면적 구성·삼호·삼포지구 면적의 5분의 2 달해 전남도 주거·상업·산업·관광용지 개발 민자 유치 나서

여의도 면적(2.9km<sup>2</sup>)의 5배에 달하는 전남 서남해안의 토지가 시장에 나왔다. 전남도 등이 해남과 영암에 걸쳐 조성된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솔라시도)의 주거·상업·산업·관광용지 등을 맡아 개발할 민간사업자 유치가 나선 것이다. 지구별 개발 방향에 맞는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 나선 전남도와 각 지구별 사업자는 조만간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실행과제에도 응모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분양대상 면적은 구성·삼호·삼포지구 전체 면적(3383만여㎡)의 5분의 2에 달하는 1434만여㎡로, 전남도내 역대 최대 규모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토 조성에 나선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의 구성·삼호·삼포지구의 개발 전략을 마련해 이를 수행할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구성·삼호·삼포지구의 분양면적은 각각 1036만여㎡, 295만여㎡, 103만여㎡ 등이다. 구성지구는 헬스·힐링 호 텔리조트, 블루시티 데이터센터, 정원산업, 삼호지구는 사우스링스 골프장과 연계한 리조트, 숙박·상업시설, 승마산업 등이 유치대상이다. 삼포지구는 자동차복합 문화공간과 한국자동차연구원 첨단장비를 활용할 모터스포츠 관련 기업, 자동차 테마파크, 태양광연계 수소산업 등과 관련된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지는

구성지구의 경우 골프장, 커뮤니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삼호지구는 골프장 및 스포츠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생산 녹지 등, 삼포지구는 경주장 및 주차장 등이 각각 들어섰거나 조만간 조성된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개발사업에 각각 338억원, 216억원을 출자 또는 투자했다. 지난 2010년 전후 개발계획이 승인된 뒤 최대한제였던 공유수면 토지화 절차가 지난 2018년 상반기 완료되면서 투자자 유치가 나섰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삼호지구의 45층 규모 대중제 골프장은 착공 5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12일 개장식을 갖고 오는 영업에 들어간 바 있다. 사업자인 서남해안레저(주)측은 추후 18층 골프장 조성을 위한 개발자금을 조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텔도 조만간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

도 나오고 있다. 구성지구에는 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지난해 12월 준공된 바 있다. 이들 모두 사업자가 직접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코트라에 솔라시도 투자유치 실행과제를 신청해 예산 2억원을 지원받은 한편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해 다국적 컨설팅기업, 대형 개발사업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솔라시도 블루시티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도 제작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서야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대규모 투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골프장, 호텔 등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토지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뒤따를 것이며, 현재도 상당한 업체들과 협의의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식도락 1번지는 역시 전남

### 지자체 중에서는 여수 1위 여행 전문 리서치 평가

전남이 여행전문 리서치 회사인 '컨슈머사이트'가 여행자와 현지인이 추천한 국내 최고의 맛 여행지 전국 1위로 선정됐다. 여수, 목포, 강진, 순천, 해남, 완도, 보성, 장흥, 화순, 담양 등 도내 10개 시·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행전문 리서치 회사 '컨슈머사이트'가 지난해 5만 5000여명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여행자-현지인의 여행지 평가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의 최고 먹거리인 해산물과 회, 한우가 뽑혔다.

전남에 이어 광주 2위, 제주 3위, 전라북도 4위에 선정돼 호남권이 단연 최고 먹거리 1번지라는 명성을 입증하게 됐다.

또 전국 시군구 중 도내 10개 시·군이 선정돼 전남도 전역이 만족할 만한 식도

락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기초지자체 중 여수시가 1위로 갖김치와 계장, 서대회, 장어탕 등이 꼽혔고, 목포시, 강진군, 순천시, 해남군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 트렌드가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 가까운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의 비중이 커져가는 추세에 따라 감칠맛 나는 전남 음식의 우수성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물과 공기, 넓은 갯벌 등 자연에서 얻은 풍부한 친환경 농수산물과 어머니의 손맛, 전라도의 인심이 더 해 만든 남도의 맛이 여행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맛을 통해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서비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역성평등지수 높이기 박차 광주시 안전분야 집중 개선

광주시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 취약분야인 안전분야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에 대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 올해 성평등지수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안전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여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 법원, 경찰청, 전문기관 등과 연대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를 새로 구성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안전망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응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올해부터는 1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과 대학생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 기관 등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상에서 더욱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평등한 안전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16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원 위촉식에 참석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피해 시민에 법률서비스

###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출범 광주시, 변호사 6명에게 위촉장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하는 '의향광주 법률지원단'이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6명에게 위촉장을 줬다.

지원단은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 침해나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원 6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로 2년 임기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 상담, 소송 대리, 형사 고소 등 활동을 돕는다.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의향광주 법률지원단(613-2774)에 상담과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정의를 위한 일들로 선량한 시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짜뉴스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법원에서 소외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소외된 시민의 인권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청년고용 우수 증기 편의시설 개선 지원

### 휴게실·기숙사 등 설치·개보수

광주시는 16일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환경개선 사업은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통해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광주 소재 2년 이상 정상이동 중인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액 20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최소 2명 이상이면 된다. 기업별로 2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20곳을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14억원을 투입해 81개 기업을 청년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가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지원했다.

구충천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기업과 청년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사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의회 기초연금 비용 부담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수정(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기초연금 비용 부담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비용 부담 기준을 기존 광주시 60%, 기초자치단체 40% 매칭에서 광주시 65%, 기초자치단체 35%로 변경했다.

기초연금에 인상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치구의 부담을 줄였다. 조례 개정으

로 2021년 자치구별 기초연금비용절감은 동구 2억원, 남구 8억원, 서구 12억원, 광산구 12억원, 북구 13억원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유가 있는 광주시가 기초연금 비용 부담을 더 많이 줄으로써 자치구 재정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며 "자치구는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20. 03. 06.(금) ~ 03. 19.(목)

전남지역 거주(예정)중인 만18세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마을로'란**

- 급여조건: 월 180~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 지원내용:
  - 마일리지 수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 직장 내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운영
- 활동지역: 전라남도 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참조)
- 문의전화: 전남테크노파크: 061) 729-2914, 북색에너지연구원: 061) 331-856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061) 362-5205

**접수 방법**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접속

일자리지원 - 마을로 - 참여기업현황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접수 (회원가입 필수)

일자리지원 - 마이페이지 - MY 현황에서 접수내역 확인

행정안전부, 전남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함평군